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9호

(주)고덴시 하요철 대리



사업장의 무재해를 위해 탱크처럼 돌진하는 안전관리자

세상이 온통 노랗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드넓은 들판과 고개 숙인 벼, 그리고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허수아비 등은 가을 농촌의 정겨움과 풍요로움을 가득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주)고덴시는 광반도체 업체로 계열사 5개와 연간 매출액 1200억으로 익산 수출자유기업 증가장큰기업이라고 한다.그명성에 알맞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무재해 7배 달성과 무재해 1000만 시간달성이라는 업적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업적 뒤에는 안전관리자 하요철 대리가 있기에 이달의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찾게 되었다.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탱크로 불린다는 하요철 대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0년 초반 산업 재해가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안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그 중 가까운 사람이 다쳤을 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며,더 이상 서로 마음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념 하나로 (주)고덴시를 지켜나가고 있다.

하대리의 사고 예방 활동으로는 안전 교육 부분을 강화시키고 매일 위험 부분 체크와 기술 지원, 매일 1회 이상 자체 점검과 유해 기계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개선하는 등의 일이다.또한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벌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과 부서를 매일 점검하여 연말에 포상금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하지만 안전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급여 삭감이나 징계 등의 엄한 처벌을 통해 안전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고 있다.

요즘 같이 안전관리자의 비중이 적어지고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하대리만은 예외이다.안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주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하대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탱크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향후 하대리는 가까운 시간에 무재해 2000만 시간 달성과 동시에 2010년까지 근로자의 무재해 무사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재해 운동이 처음과는 달리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지금 포상금 등의 활성화로 회사의 전직원이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탱크같은 힘을 가진 안전관리자 하요철 대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재해 달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늘의 취재를 마친다.



<허근기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있어서 내가 최고 권위자란 자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